전주발전사업, 시민과 함께 발굴

시, 내달 9일까지 '올 하반기 정책제안 공모'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업들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 관련 정책아이디어 발굴과 전주 발전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2018년 시민·공무원 제안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 공모는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공모와 공무원 공모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시민 공모의 경우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인 △새로운 성장으로 가슴뛰는 미래(경제) △삶이 되고 밥이 되는 찬란한 문화(문화)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복지) △멀리보고 함께가는 따뜻한 전주(공동체)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도시)의 5개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전주시의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 세부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공모의 경우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되어 전주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 △전주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주 문화·관광 연계사업 △기타 전주시의 특화된 사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국책사업 △공공부문의 투자 또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들은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한 뒤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획득한 것이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공무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와 전주시를 견인할 신규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더욱 활성화 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1회용품 줄이기 다울마당

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 소비자대표, 일회용품 제작·사용업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년희망단 등 시민단체 대표와 사람과환경, 농협하나로마트, 대한제과협회 등 관련 업계 대표,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품 줄이기 다울마당'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과 시민참여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회용품을 남용할 경우 도시환경은 물론, 산림·해양 등 자연생태계까지 오염시킨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일회용품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집중 모색했다. /송효철 기자

27일 첫마중길 나르샤 페스티벌

전주에서 활동중인 공동체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오는 27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 전주시온두레공동체협의회는 오는 27일 전주 첫마중길에서 '2018 온두레 공동체 나르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나르샤 페스티벌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맞아 할로윈 체험과 할로윈과 연계된 판매부스, 각종 이벤트 존 등이 마련된다. 또, 버스킹 공연 등 각종 문화 공연 마당도 펼쳐진다. /송효철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0일 김승수 전주시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 머리 맞대다

전문건설협 전북도회,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10일 김승수 전주시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도회장은 "공사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업체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이는 지역업체의 수주물량감소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전주시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정책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승수 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합심해서 극복해 나가자."며,"전문건설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맞춰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윤덕 민주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장은 "실제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수주물량이 늘어나야 지역의 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주시와 함께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민간 건축공사에 전주시와 시공회사,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양해각서(MOU) 체결'과 '건설하도급관리 전담조직 신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

전주시가 장기·조직기증 희망 등록 신청 접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기증희망등록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보건소와 35개 동 주민센터, 시청·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확인 인증을 한 후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이 발송된다. /송효철 기자

한국의 꽃심을 세계로

제26회 전주예술제, 15일 풍남문광장 일대서

2018년 제26회 전주예술제가 '한국의 꽃심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주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26회 전주예술제는 10개의 회원단체가 각각 공연과 전시부문으로 나뉘어 3일간 열린다.

특히, 올해 예술제는 전주의 꽃심을 부각하면서 전주시청을 출발하여 오거리와 관통로를 거쳐 풍남문광장에 이르는 약 2.5km를 150여명의 시가 행진단이 행진을 펼쳐 볼거리를 제공한다.

10일 전주예총에 따르면,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며 문화특별시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악합주단을 앞세우고 사물놀이팀과 농악팀 등 퍼레이드팀과 전주예총회원 50명, 제주도 서귀포 예총 31명이 각각 청사초롱을 들고 시가지 거리행진을 펼치면서 이번 예술제의 서막을 연다.

예총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개막식 내용을 색다르게 구성하여 다양한 이벤트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주만의 이미지를 보여줄 예정으로, 15일(월) 시가퍼레이드 후 농악팀이 행사장인 풍남문 광장을 돌면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막식 당일에는 전주음협 성악가들의 축배의 노래, 문인협회의 축하시 낭송, 전주찬가를 참석자 모두 부르고 7시 30분 이후에는 전주영화인협회에서 '변산'이라는 영화상영이 예정되어 있다.

두 번째 날인 16일(화)에는 오전에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각각 4시부터 연예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등의 공연이 1시간 간격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3일간 전주미술, 문인, 사진작가, 영화인, 건축가협회등의 전시물 등이 풍남문광장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 전시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성매매 적발 공무원 5년새 40명

전북지역, 작년 13명 적발… 소병훈 의원 "공직사회 바로잡아야"

전북지역에서 5년 동안 성매매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무원은 총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총 470명의 공무원이 처벌 받았다.

전북의 경우 총 40명으로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21명, 지난해 13명이 성매매로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지역 공무원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56명, 부산 54명, 경기 52명, 대구와 전북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 회피 선도도시 지정

전주시가 시민들을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세먼지 저감 선도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등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입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승강장 주변 미세먼지 차단 부스형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가 앞서 추진해 온 승강장 기능과 쉼터 기능을 함께 갖춘 '예술 있는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보한 국비 1억 2000만원 등 총 4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버스 이용객이 많고 차량정체 및 통행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로변 8개소에 부스형 승강장을 설치한다. /송효철 기자